

협회 회장단 · 大島 正太郎 주한일본대사 상견례



우리협회 회장단은 지난 8월 26일(금) 신라호텔에서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郎)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 설원봉(薛元鳳) 부회장(대한제당 회장), 성재갑(成在甲) 부회장(LG석유화학 고문), 우석형(禹石亨) 부회장(신도리코 회장), 유상부(劉常夫) 부회장(포스코 고문), 이운형(李運珩) 부회장(세아제강 회장),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 이길현(李吉鉉) 감사(경원 회장),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 등 회장단 22명(부부동반)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郎) 주한일본대사, 우라베 토시나오(卜部 敏直) 총괄공사, 야마모토 에이지(山本 栄二) 경제공사 등 5명(부부동반)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 간의 협력분위기 조성 및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석래 회장은 8월에 부임한 오시마 대사의 취임을 축하하고, 최근 한일관계의 몇 가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의 응어리를 제거하면서 이웃으로서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오시마 대사는 답사를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협회 회장단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73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결단식·세미나 개최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일본 치바 마쿠하리멧세에서 개최되는 제 73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에 앞서 참가단원(8개사)을 대상으로 일본 정보통신 업계의 현황과 대일 시장진출 방안에 관한 세미나 및 사전결단식을 지난 9월 9일(금) JETRO서울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의 인사에 이어 첫 번째 순서로 히라타 카즈오(平田 一男) JETRO서울센터 해외투자고문으로부터 「일본의 정보통신업계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성공적인 비즈니스상담을 위해)」라는 주제로 후지모토 카즈히코(藤本 和彦) JETRO서울센터 사업부장의 강연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사무국으로부터 금번 미션에 대한 안내와 공지사항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동 수출촉진단은 1985년부터 일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72회에 걸쳐 일본 37개 도시(연227개 도시)에서의 일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일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CEATEC JAPAN 2005』 개최기간(10월 4일~8일)에 맞춰 같은 전시장내에서 JETRO가 주최하는 JETRO BIZMATCH@CEATEC JAPAN에 참가하여 바이어와 1:1 비즈니스상담회를 갖는 새로운 형태의 미션으로 개최되어 보다 높은 상담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74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을 12월 7일(수)~10일(토)까지 일본 동경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현재 참가기업을 모집 중에 있사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우리 홈페이지(www.kjc.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는 ①컴퓨터보안(시큐리티)/정보보안, 정보시스템보안 등 보안기술 분야, ② 정보·통신/광학, 광공학, 레이저기술·기기, ③ 기계·공업 기술/전기·전자(제품, 기기), ④ 정보·통신/통신, 정보처리, 컴퓨터분야입니다.

<제73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참가기업>

1	Ahranta, Inc.	http://www.ahranta.com
2	CHEEWOO Engineering	http://www.cheewoo.com
3	Cobank Co., Ltd.	http://Home.cobank.net
4	SidusM Inc.	http://www.tingbell.com
5	NextData Systems Co., Ltd	http://www.nextdata.co.kr
6	UINEC Co., Ltd	http://www.uinec.co.kr
7	Redeye	
8	SEROM HI TECH	http://www.serom-tech.com

제1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 2005년 10월 11일(화)~14일(금)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



일본 큐슈(九州)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 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1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오는 10월 11일(화)~14일(금)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개최됩니다.

한일 양국 자치단체간 ①중소기업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촉진, ②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사절단 상호교환, ③연수 및 인재육성, 인재교류, ④무역·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홍보협력, ⑤지방간 경제교류 활성화 등 5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한일간의 무역촉진을 위해 「한·일(큐슈) 바이오 산업협력」을 테마로 한·일(큐슈)무역촉진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바이오 산업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큐슈(九州) 지역

- 큐슈(九州)지역은 일본 열도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고,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구마모토(熊本),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및 가고시마(鹿児島)의 7개県으로 구성되어 있음
- 큐슈지역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 면적은 일본 전국의 11.2%, 인구는 10.6%, 총생산액은 8.7%로 대략 일본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1할 경제」로 불림
 - 그러나 선박준공 실적(33.4%)과 IC생산량(31.5%) 등은 일본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생산거점임
 - 큐슈의 지역 총생산액(GDP)은 세계 13위의 오스트레일리아와 14위의 네덜란드에 필적하며, 네덜란드와는 GDP·인구·면적도 거의 비슷한 규모임
- 큐슈는 일찍이 4대 공업지역의 하나로 석탄, 철강, 화학, 조선 등의 소재형 중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 '90년대 들어 지방화정책 추진, 엔고현상 등으로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고도 가공조립산업과 정보관련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日本은 지금...

日本, 上昇의 30年 스타트(2)

公文 俊平 (KUMON Shumpei)

多摩대학(Tama University) 정보사회학 연구소장

<일본, 제3의 상승국면 도래>

한편 일본은 19세기 중반, 아시아에 진출해 온 유럽과 접촉하여 그 뒤를 쫓는 형태로 서구화로서의 근대화への 노선으로 전환했다. 제1의 물결(파도), <軍事化>는 1880년대(내각의 성립, 대일본 제국 헌법의 제정, 제국 의회의 소집 등)에 시작했다.

국내적으로는 문명이 개화하고, 국제적으로 세계열강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를 위한 전략이 富國強兵(경제력과 군사력의 강화)이었다. 그리고 日淸戰爭, 日露戰爭, 제1차 세계대전에 승리하여 세계의 열강에 올랐다. 여기까지 약 30년이다.

제2의 물결(파도), <産業化>는 그 무렵부터 시작하고 있었지만, 본격화 한 것은 1940년대 이후이다. 태평양 전쟁 패전의 1945년이 아닌 1940년대라고 말한 이유는, 野口悠紀雄氏가 <1940년대 체제>(1995년)에서 지적한 것처럼 급여 소득의 원천징수제도, 지방에의 보조금 교부세 제도 등 戰後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제도적 구조는 실은 1940년의 체제 개정으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戰後의 新憲法 제정, 농지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이 이어져 1940년대를 통해서 산업화への 추진 기반이 갖추어진 것이다. 이 산업화에 성공하여 일본이 GNP 제2위가 된 것은 1968년. 여기까지 역시 약 30년이다.

이 시대의 국가 목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제적으로는 평화주의이고, 그를 위한 전략은 <經濟成長>이었다.

제3의 물결(파도), <情報化>는 21세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덧붙여 말하면 일본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정보화라고 하는 새로운 파도의 존재를 알아챈 것이 상당히 빠르다. 정보화라고 하는 단어(말)이 생긴 것도 상당히 빠르고, 이미 1960년대부터 <情報化>와 <정보 사회> 등의 단어로 議論이 시작하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 하나의 물결의 주기는 300년, 앞의 파도가 출현하고부터 다음의 파도가 출현하기까지 200년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각각 90년, 60년. 즉 일본은 3배 이상의 스피드로 근대화=서구화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세계의 선두에 서 있다.

이 근대화에 있어 週期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일본은 1880년대, 1940년대에 이어 제3의 상승에의 전환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은 <地球智場>에 있어 <知的 플레이어(Player)>로서 세계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쿨 재팬(Cool Japan)>이라는 말로 표현 되어지듯이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젊은이의 패션 등의 대중문화의 분야에서 일본은 이미 超大國이고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징조의 하나이다. 일본인은 풍부한 감성을 갖고 전통적으로도 調和, 循環, 共生을 중시하는 문명을 쌓아 왔지만 이러한 전통은 향후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유효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일본이 세계의 先端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단, 先端에 선 것만으로 先行 모델은 아니

고 일본은 스스로 목표와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의견에서는, 제3의 상승 국면에 있어서 국내 목표는 <地域化>이다. 道州制의 도입, 더 나아가서는 연방국가 형성에 이를 정도로 지방 분권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목표는 <地球化>이다. 지구 사회의 멤버로서 매력 있는 존재가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공헌을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정보화 이외에는 없다.(여기서 말하는 정보화는 근대화의 제3의 파도로서의 정보 사회와 산업화의 성숙으로서의 정보 산업화의 양방을 포함)

이 목표와 전략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법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 안보체제의 확립과 연방국가의 실현만이 아닌 지적 소유권을 완화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으로 <智民>에 의한 <智業>을 지원해야 한다.

근대화의 제3의 물결(파도)인 정보화의 국면은 일본만이 아닌 세계가 맞이하고 있다. 그 정보화를 하루 빨리 진행시킨 지역이 향후 세계의 先端 지역으로서 대두할 것이다.

그 때, 일본이 우위에 서는 요인은 몇 개가 있다. 목표와 전략이 정해지면 그것에 자산을 집중 투자하는 민족성도 그 하나이다. 또한 외래의 문화를 유연하게 수용해 온 역사가 나타내듯이 일본인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지만, 그것도 <共動>(Collaboration/협력)의 원리가 요구 되어지는 정보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다.

반대로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 그 최대의 것은 <출생률의 저하>이다. 지금의 사태가 앞으로 계속 된다면, 50년 후에는 인구가 3,000만이나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년에 하나의 100만 도시가 소멸한다 라고 하는 페이스로 사회 활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조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우위성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화는 미국이 주도해 왔지만, 향후도 미국이 세계의 선두에 계속 설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 1990년대의 세계 비전은 미국이 세계를 견인하고 일본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거기에 추격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전 <렉서스와 올리브의 나무>(2000년)에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제이션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뉴욕 타임즈 전속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후리도만은 금년의 新著 <The World Is Flat>에서 <Flat 세계>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표명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프라의 등장과 그 외의 기술혁신에 의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과 인도,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기업은 동일의 경쟁 조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미국조차 先端의 위치로부터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카네기 메론 대학의 리차드 후로리다 교수(도시 계획)는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창조적 계급의 비약)>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말했다.

<미국은 창조적 계급을 야기하는 3개의 조건, 즉 기술과 재능 그리고 관용성에 있어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 뒤쳐지고 있다. 이대로 라면 세계의 창조적 계급의 最先端 부분은 웰링턴과 밴쿠버와 같은 재능의 흡수력을 갖는 도시와 중국의 상해와 인도의 방가로루와 같은 新産業 도시에 점점 끌어 당겨져 미국의 모든 도시는 제거 되어져 버릴 우려가 있다.>

그의 <Creative Class> 비전에는 일본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창조성의 지표에서는 세계 2위에 랭크되어져 있다.(1위는 스웨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으로부터 본격화 하는 정보화의 국면에 있어서 일본이 선두를 달릴 찬스도 큰 것이다. <以上>

會員 動靜 & 短信

■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이 한일 양국 지식인들이 모여 우호협력 증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제 13차 한일포럼'에 참가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하여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조석래 회장을 비롯, 공로명 전 외무장관과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모기 유자부로 회장,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아사히맥주 회장) 등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인사 41명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사회 변화와 양국관계에의 영향 ▲역사·영토문제의 여러 측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한일협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포럼 마지막 날인 31일, 한일포럼 공동의장인 공로명 회장과 모기 유자부로 회장은 13차 연례 회의를 마치면서 '양국간 비자의 전면 면제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효성**의 폴리에스터원사 PU가 품질과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적인 인증인 'ISO 9001'과 'ISO 14001'을 획득했다.



■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주) 회장)은 평안남도 강서군 '우리민족 금성동양농기계공장' 준공식에 대표단 70명과 함께 9월 12일 오후 대한항공 전세기편을 이용해 서해직항로를 통해 3박 4일간의 방북 길에 올랐다.



■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은 8월 25일 최근 기업경영에 있어 최대의 화두인 '블루오션전략'의 저자인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를 초청한 강연회에

서 축사를 통해 "신한금융그룹 전임직원의 필독서인 블루오션 전략은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가치창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며, 신한은행 설립 초기 당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준 베네치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레드 오션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월 7일 전남대학교에 6억7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기업이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이더라도 R&D와 교육, IT,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경영을 통해 세계 일류의 가치를 창출하고, 신뢰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달했다.



■ **손경식(孫京植) 부회장**(CJ(주) 회장)은 9월 8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의 차세대 지도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차세대정치지도자협의회(ACYPL)의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 했다. 손 회장은 이들을 만나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향후 세계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 그룹 부회장)이 9월 1일 모처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업 다각화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신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일본에서 ‘국민복’으로 불리는 대중적인 캐주얼 브랜드 ‘유니클로’의 수입판매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영 캐주얼 의류 부문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유니클로 외에도 다른 해외 브랜드와의 제휴 및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 **조양호(趙亮鎬) 부회장**((주) 대한항공 회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45주년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항공사가 사상 최초로 항공화물운송 부문 세계 1위에 올라선 쾌거를 자축하기 위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동북아 물류허브국가로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면 정부는 물류인프라 구축에 보다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조 회장은 또 “중국·일본·싱가포르 등과의 물류허브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물류 부문의) 노동시장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벤처농업대학 명예학장을 맡고 있는 **현명관(玄明官) 부회장**(삼성물산(주) 회장)은 8월 29일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사)제주농업포럼 창립기념 한국벤처농업대학 공개강좌에서 성공하는 농업경영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계획경영과 적극적인 도전의식,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현 회장은 “농업인들은 영농도 경영이라는 생각을 갖고 경영의 기본목표인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익창출을 위해 뚜렷한 직업관을 가진 주인의식과 선의의 경쟁자와의 경쟁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는 8월 2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한중일비즈니스포럼 한국위원회」 발족 회의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초대위원장에 선임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을 비롯하여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이종훈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의장(중앙대 명예교수) 등 관련인사 20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10월 13일~14일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의 참가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고 있다. (※문의 : 전경련 국제협력실 배희은 연구원 Tel.02-3771-0241 E-mail.monbae@fki.or.kr)



■ 금번에 아래 기업이 우리협회 회원으로 신규 가입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포항강판(주)** ■

<http://www.pocos.co.kr>

대표자 : 한광희 대표이사

Tel.02-2186-8800 Fax.02-2186-8890

■ **(주)동화Entec** ■

<http://www.dh.co.kr>

대표자 : 김강희 대표이사

Tel.051-970-1000 Fax.051-970-1001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사무국장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차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shim@kjc.or.kr

한일 축제 한마당(日韓交流おまつり) 안내



-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우정의 해 2005’ 일본측 실행위원회 주최로 <한일 축제 한마당 / 日韓交流 おまつり>가 9월 24일(토) 14:00~20:00까지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서 개최됩니다.
- 일본의 각 지방을 대표하는 10여개의 전통예능단체와 한국의 민속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 특설무대 및 퍼레이드로 나누어 행사를 갖습니다.
- 이번 <한일 축제 한마당>은 ‘체험’이라는 주제 아래 한일 양국의 다양한 민속예술의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아오모리의 대표적인 연등축제 "네부타(ねぶた)", 돗토리현의 "고진 카구라(荒神神樂)", 아키타현의 "간토마쓰리(竿燈祭り)",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헤이케오도리(平家踊り)" 등이 한국에 소개됩니다. 특히 "네부타"에는 250명의 일본인과 250명의 한국인이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제작된 "네부타 의상"은 행사가 끝난 후 기념품으로 "네부타"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됩니다.

- 이와 아울러 마로니에 공원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스도 설치되며, 공원내의 TTL 스테이지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조직한 ‘실행위원회’가 주관 일본인과 한국의 전통예술 동호인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네부타" (대형 연등 : 11m(W)×9m(D)×5m(H))는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중학교 교정에서 6일간에 걸쳐 제작되며, 일본의 네부타 장인(匠人)들로 구성된 제작팀에 의한 "네부타" 제작과정을 학생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이 행사의 관람객수는 2만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특설무대 사회자로 MBC의 인기 아나운서였던 박나림 씨를 기용하여 더 많은 기대됩니다.
-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서울일본인회(SJC : Seoul Japan Club) 및 한국측 자원봉사자들의 참가와 협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한일양국 국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우정을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시민차원의 교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일 축제 한마당 / 日韓交流 おまつり>에 관해서는 ‘한일우정의 해 2005’ 공식 사이트(<http://www.jkcf.or.jp/friendship2005>) 및 한국측 대학생실행위원회의 사이트(<http://www.yafestival.com/>)에서도 더욱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아무쪼록 한국과 일본의 35여개 단체와 1,500여명의 참가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서로의 전통과 문화를 선보이고 또 새로운 우정을 다시금 확인할 <한일 축제 한마당 / 日韓交流 おまつり>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24일 대학로가 한일우정의 축제 한마당으로

한국 일본 양국 정부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 2005」로 정하여 한일 양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하기로 하였으나, 「한일 우정의 해 2005」를 구체화한 행사입니다. 본 행사를 위하여 일본에서는 약 500명의 시민이 자원하며, 또 한국에서도 약 1000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대학로에서 축제 한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꼭! 구경하러 오세요

메인 무대 (대학로 자도 특설 무대)		(사회: 박나림 아나운서)	14시30분~17시
1 헤이케오도리	일본	일본복과 춤	
2 다투	한국	속과 타악기	
3 뽀빠춤	일본	오기노리 배	
4 함박오리	한국	부채춤	
5 초부코이	일본	요사코이	
6 SOREA	한국	전통 악기용 사물놀이 현대적인 음악	
7 고진카구라	일본	신체로 이루어진 무용 연극	

시는 스테이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터)		11시~14시30분
1 이영희 전통무용단	한국	전통무용
2 양수정 함박무용단	한국	전통무용
3 김연희 무용단	한국	전통무용
4 노수진 무용단	한국	전통무용
5 최영진 재즈팀	한국	재즈

퍼레이드		17시30분~20시
1 휘파람	한국	전통적인 탈춤
2 포도대밭과 순박관	한국	일본의 지역성
3 태극타기춤	일본	일본의 지역성
4 한일문화교류연희회	일본	일본의 지역성
5 캄보디아춤	한국	일본의 지역성
6 함다우인의 악동들	한국	초등학교의 무용
7 초부터	일본	일본의 지역성
8 동산학교 나그네들	한국	시골마을
9 대교도	한국	초등학교의 레크리에이션
10 봉산 춤들	한국	한국전통 춤들
11 사도모리사	일본	고등학교의 전통무용
12 뽀빠 고전무용	일본	고등학교의 전통무용

~요사코이 페스티벌~	
13 요사코이 페스티벌	한국
14 요사코이 페스티벌 협회대학교공연팀	한국
15 한국 요사코이 'JIN'	일본
16 요사코이 페스티벌 'YAL'	일본

~한일 연등 페스티벌~		
17 아카사기 연등	일본	연등이 있는 내셔널 연등 40개를 위한 연등기
18 아카사기 연등	일본	연등을 바라보고 춤추는 춤
19 남한산성 제가상	한국	제가상과 연등의 형태
20 아오모리 네부타	일본	거대한 연등과 600명의 춤꾼에 의한 형태

※ <한일 축제 한마당 / 日韓交流 おまつり> 연락처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8 / TEL : 02-765-3011 / FAX : 02-742-4629